

[일본] 新트렌드 반영한 이색 신상품 동향

최근 일본 보험업계는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라이프스타일, 그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기존에 없었던 이색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상품 개발 시 빅데이터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판매 시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임
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의 상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함

- ①독감 위로금 보험 ②관광지 2차피해 보상보험 ③시간제 근로자 재해보험

1. [업계 최초] 독감 위로금 보험¹⁾

□ 대형 생보사 스미토모생명 자회사인 아이알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업계 최초로 독감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함 (2023년 1월)

○ 모바일 결제앱 PayPay*의 보험서비스 「PayPay보험」 전용상품으로,

* PayPay: 야후·소프트뱅크 계열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로 4,5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여 일본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1위(45%)를 차지

○ 작년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열사병 보험*이 큰 인기를 얻으며 우수한 판매실적을 거두자, 이와 유사한 상품 구조(저렴한 보험료, 단기 정액보장, 모바일 보험)로 독감 보험을 개발(업계 최초)

* 열사병으로 치료/입원 시 정액의 보험금 지급. 일/월 단위 보장. 100엔대의 저렴한 보험료

[그림1] 독감 위로금 보험 공동 개발사



1) 스미토모생명 「인플루엔자 위로금 보험」(2023.1.11.)

□ 상품 주요 내용

- (업계 최초 독감 리스크 보상) A형/B형 독감 발생으로 인해 치료 및 약 처방을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
 - (250엔~ 저렴한 보험료) 1개월에 250엔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없이 가입 가능
 - (간편한 가입·신속한 지급) 가입과 청구 모두 Pay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, 보험금은 병원/약국이 발행한 영수증/진료명세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청구 당일 지급
- 보험료는 PayPay 포인트로 납입 가능

명칭	독감 위로금 보험				
판매기간	2022년 1월 11일~ 3월 22일 2023년 이후: 9월 1일~3월 22일 (예정)				
보장기간	2022년 1월 21일 ~ 4월 30일 기간 내에서 중 1~3개월 중 선택 2023년 이후: 10월 1일 ~ 익년도 4월 30일 내에서 1~7개월 중 선택				
계약연령	계약자: 18세~99세 / 피보험자: 10세~99세				
지급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보험금: A형/B형 독감 진단을 받고 독감 치료제(타미플루 등)를 처방받은 경우 - 입원보험금: A형/B형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1박 2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 <p>* 지급한도: 보장기간 내 2회 한도</p>				
보장내용 및 보험료	① 월 정액형: 1~7개월 (1개월 단위)				
	항목	플랜	슬림 플랜	기본 플랜	안심 플랜
	보장 내용	치료보험금	3,000엔	7,000엔	10,000엔
		입원보험금	30,000엔	30,000엔	30,000엔
	월 보험료	10~14세	600엔	850엔	1,090엔
15~19세		380엔	500엔	620엔	
20~99세		250엔	310엔	360엔	

[그림2] 독감 위로금 보험 가입 화면



* 출처: 스미토모생명 「인플루엔자 위로금 보험」(2023.1.11.)

2. [업계 최초] 관광지 2차 피해 보상 보험²⁾

□ (개요) 대형 손보사 동경해상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허위 보도나 과장된 뉴스, 헛소문,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보상하는 신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함 (2022년 10월)

○ 본 상품의 정식명칭은 「관광 풍평피해*보험」이며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소비자 불안감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관광업계를 주요 타겟으로 개발한 상품

* 풍평피해(風評被害)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가짜뉴스나 뜬소문, 허위보도 등의 영향으로 상품/서비스업자가 입는 손실을 뜻함

○ 2차 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업체와 제휴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시 해당 업체의 피해 정량화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

2) 동경해상 「관광 풍평피해보험 제공 개시」(2022.10.4.)

□ (배경) 일본은 홍수나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, 직접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객 이탈 등으로 재해 발생지역 전체의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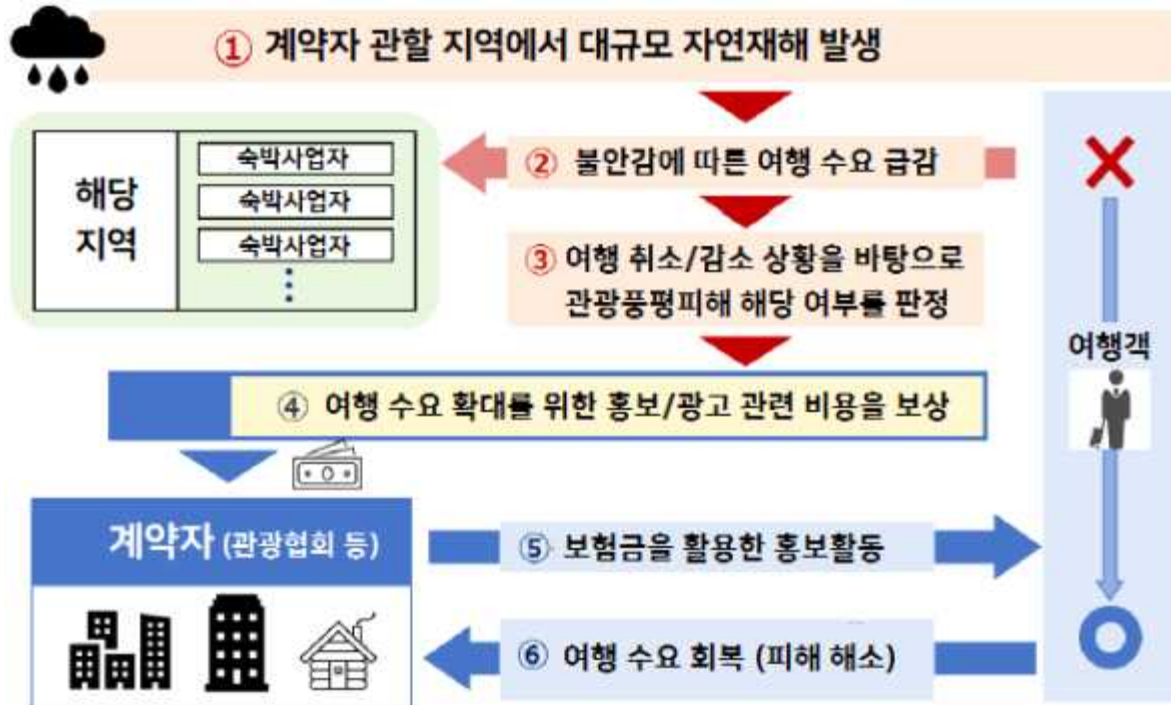
- 예를 들어 재해 지역이라 하더라도 호텔이나 식당 등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여행/관광 수요가 급감하여 영업 손실로 이어짐
- 이러한 2차적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정상화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
- 이에,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식시켜 여행 수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광고/홍보활동과 이벤트가 필요로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함

□ 상품 주요 내용

- (계약자) 지역별 여행업 관련 단체, 연맹, 관광협회 등
- (보상내용) 관광지에 대형 재해로 인한 여행객/관광수입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, 영업 정상화 및 여행객 집객 등을 위해 실시하는 TV/인터넷 광고 및 홍보행사 비용을 실비로 보상함
 - 단, 태풍, 홍수, 산사태 등의 재해는 보상하나 지진, 화산 폭발, 쓰나미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
- 보험금 청구 시, 대상지역의 풍평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피해 정량화 시스템(※)을 활용할 것을 권장

※ 관광지 풍평피해 정보처리시스템: J&J 사업창조가 개발한 시스템으로, 과거 자연재해 피해데이터와,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기반의 인구분포통계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발생 후 주변 지역의 인구 유·출입을 추정하는 시스템. (주)NTT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'모바일 공간통계'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숙박고객의 감소 정도를 예측 가능

[그림3] 관광 풍평피해보험 상품 구조



* 출처: 동경해상 「관광풍평피해보험 제공 개시」(2022.10.4.)

3. 시간제 근로자 재해보험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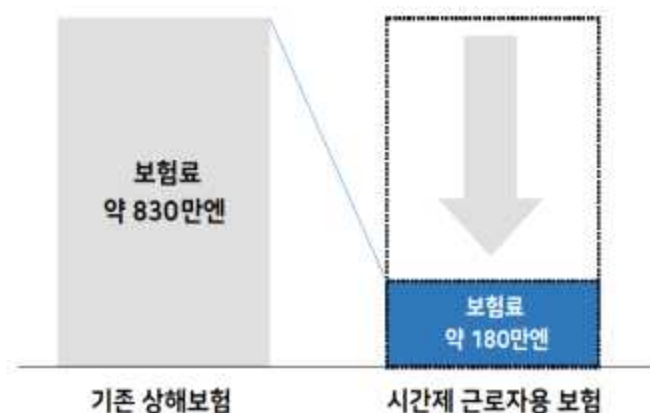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(Spot Worker)의 근무 중 재해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 개시 (2023년 2월)
- (배경) 근래 들어 코로나 영향 및 MZ 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겸업/부업,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할 때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어 왔음
 - 한 조사⁴⁾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약 300만명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3) 손보재팬 「시간제 근로자용 보험 출시」(2022.12.7.)

4) 일본 '쓰나구 근로방식연구소'가 실시한 노동시장조사

- 이같은 전망을 바탕으로, 시간제 근로자를 회원으로 보유하는 “Spot Work 정보제공사업자” 는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서고 있음
 - 손보재팬은 이러한 정보제공사업자들의 니즈에 대응하여 관련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함
- (상품 개요) Spot Work 정보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, 고용기업이 사내규정에 따라 위로금으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함
- (계약자) Spot Work 정보제공사업자
 - (보상대상자) Spot Work 이용기업에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
 - (보상내용) 고용기업의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(사망/입원/통원 등)
 - (보험료 예시) 보상금액, 직종, 노동시간, 근로자수 등에 따라 변동
 - 보험금: 사망보험금 300만엔 / 입원일당 3천엔 / 통원일당 2천엔
 - 일일 근로자수: 최대 1,777명. 평균 777명, 요식업/편의점 등의 서비스업, 창고 단순작업, 사무업무 등의 직종으로 설계 시 180만엔

[그림4] 시간제 근로자 대상 보험료 예시



4. 가사서비스 보험⁵⁾

- (개요) 대형 생보사 다이이치생명의 자회사인 다이이치 스마트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질병/상해로 입/통원을 하여 가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함 (2022년 8월)
- (배경) 코로나를 겪으며 지역사회 내 유대관계가 한층 약화되고 부모나 지인에게 가사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사/육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
 - 설문조사⁶⁾에 따르면 가사대행서비스 미이용자들의 경우 니즈는 있으나* 경제적 이유**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
 - * 가사대행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78%이며 그 중 54%가 향후 가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
 - ** 일본 가사대행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4만~5만원으로 한국의 약 2~3배 수준
 - 이에 다이이치스마트는 질병/상해로 인해 가사 및 육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함

[그림5] 가사서비스 보험 이미지



5) 스미토모생명「인플루엔자 위로금 보험」(2023.1.11.)

6) 2021년 10월, 다이이치생명 및 다이이치스마트 실시 「가사대행에 관한 시장조사」(1,800명 대상)

□ 상품 주요 내용

- 질병/상해로 입/통원 시 가사대행서비스 이용대금을 실비 보상
- 연령/성별에 상관없이 월 500엔의 부담없는 보험료로 가입
- 가입부터 청구, 지급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

명칭	가사대행비용보험		
계약연령	18~49세		
보장기간	매년 자동 갱신 (최대 10년)		
월 보험료	500엔		
보장내용	지급사유	보장금액	보장기간
	상해에 의한 통원	이용대금의 50% 통원 1회당 최대 5천엔	최초 통원일로부터 7일 이내
	질병/상해에 의한 입원 ¹⁾ (당일 입원 포함)	이용대금의 100% 입원 1회당 최대 15천엔 ²⁾	입원기간 중 및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
	산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시 ²⁾	이용대금의 100% 최대 15천엔 (진단 1회만 보상)	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
1) 임신/출산/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보상대상 외 2) 대상 질환: 조울증, 대인공포증, 공황장애, 적응장애, 조현병, 자율신경실조증 등 3) 보험기간 중 입원/상해로 인한 통원의 합산 보험금의 상한은 30만엔			

[그림6] 보상하는 서비스 종류



* 출처: 다이이치스마트 소액단기보험 홈페이지